

제28회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총주제 : “웨슬리의 신앙유산을 이어가는 평신도”

2006년도 주제 : 세계 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전국·연회·지방·사회평신도부 총무

Contents

1	○	I. 평신도주일에 즈음하여 ... 윤연수 감독
3	○	II. 평신도주일의 의의 ... 엄마리 총무
		III. 설교자료
5	○	1.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 박종천 교수
10	○	2.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 신문구 목사
15	○	3. 비밀을 맡은 자 ... 이상운 목사
		IV. 설교자료 모음(예화)
20	○	1. 미국 감리교 한국선교 개시 外 3편 ... 유영설 목사
24	○	2. 두 감독의 순교 이야기 外 2편 ... 정진권 목사
		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29	○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31	○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33	○	3. 사회봉사 사업 예시
37	○	4. 세계감리교대회(WMC) 소개
42	○	5. 감리교 신앙 실천 운동
		VI. 첨부자료
50	○	현수막, 헌금봉투, 포스터, 성수결과보고서

【 평신도주일에 즈음하여 】



윤 연 수 감독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전문화, 분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선교전략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들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사회생활을 통하여 전문화와 분업화를 경험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은 많으나 좋은 일군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군이 없다기보다는 달란트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감리회의 위상을 높이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훈련되고 준비된 평신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유능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 감리교회가 사회적 역할에서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평신도들이 각계각층에서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금년 7월에 세계감리교대회(WMC)가 서울에서 열리게 됨으로 평신도들의 역할이 매우 기대됩니다. 각국 대표들을 안내하고 통역하는 등 대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평신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이 세계감리교회 대표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세계교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다고 해도 평신도 지도력을 개발하고 양육하는 일은 목회자들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은사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활동하게 해야 감리교회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신도주일을 지키면서 이 자료집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평신도국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해주시는 국 위원들과 정성껏 원고를 집필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열정을 평신도사업을 위해 쏟아 부으시는 엄마리 총무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Ⅱ 평신도주일의 의의

【 감리교인으로 긍지를 갖는 평신도! 】



엄 마 리 장로

사회평신도국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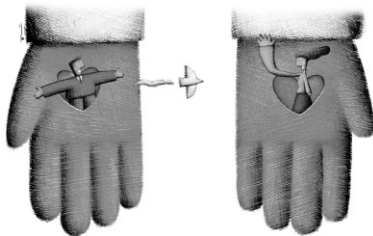
금년 평신도주일(6월 4일)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집을 만들면서 교제는 총무활동 4년째를 맞아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 동안 평신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스스로 자문해보았습니다. 개체 교회나 연합 사업에 참여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복음 사역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진취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체교회의 기획위원회의나 임원회의를 통하여 평신도들이 목소리를 내는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점점 더 묵회하기 힘든 여건으로 바뀐다는 염려와 걱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평신도가 늘어나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제는 평신도들의 지도력을 양육하면 할수록 교회와 사회를 위해 크게 공헌하고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평신도들을 능력 있는 사역자로 양육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평신도국은 금년 5월부터 평신도 지도력 개발을 위한 2년제 평신도대학을 개강하게 됩니다. 평신도대학은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사회를 향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평신도 지도력을 갖추도록 양육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평신도를 인정하고 평신도 사역을 감당할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일로 감리회에 큰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지도력은 엄청나게 젊어지고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생활에 익숙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책임적인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이는 우리 감리회에 활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금년 평신도주일에는 평신도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감리회의 미래의 희망을 펴는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활용하시도록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5:19, 예레미야 4:1~2



박종천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 세계감리교협의회 실행위원

2006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금란교회에서 전 세계 132개국으로부터 5천여 명의 교회지도자들이 모여 세계감리교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 대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협의하는 모임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세계 대회를 한국감리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계교회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전 세계와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일천 만 명의 이산가족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과 북한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해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한국교회의 사명은 화해의 삶을 한국 땅에서부터 먼저 실천하지 않고는 온전히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화해의 삶을 가능하게 해 주는 화해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 곧 세상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물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일심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함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 14:1) 성경은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롬 3:10~12).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고후 5:19) 도리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고후 5:21)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롬 5:10)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요일 4:19)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
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찰스 웨슬리의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위기에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언약하고 불신앙적인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시는 자기희생으로, 곧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을 의롭

다 하셨습니다(고후 5:21). 하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바꿈질! 교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이용도 목사님은 “부절(不絕)히 우리의 생명에서 불의를 찾아가지고는 예수에게로 달려가서 그 생명의 의와 바꾸어가지고 나오는 생명과 생명의 바꿈질”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외쳤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면, 곧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고후 5:19),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맡기십니다.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심과 화해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마 5:23~24). 이 말씀은 화해를 실천하는 삶이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보다 우선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웃에게 잘못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인 우리가 먼저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해 줌으로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한국전쟁으로 빚어진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불화와 반목은 쌍방이 비인도적인 행위를 했다고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 뉘우치며 마음을 열어야 대화가 되고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도저히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간구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고후 5:20). 앞으로 남북한 교회의 만남과 연합 사업 가운데 화해를 위한 권면과 간구의 사명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화해의 노력 이전에 먼저 각자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룸으로써 상대방을 하나님과의 화해에로 이끄는 일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의 죄를 들춰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의 죄를 하나님과 상대방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민족 간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의 직분을 유보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심으로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죄과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겨 죽게 했던 제자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심판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려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가 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해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빌 2:6~7) 지극히 겸비한 마음이요, “목자 없는 양 같은”(막 6:34)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지극히 자비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재판관이 죄가 확정된 범인에게 사면을 받아들이라고 간청하며, 이 세상의 어느 채권자가 파산한 채무자에게 완전한 채무소멸을 받아들이라고 간청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하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권면하시고, 최대의 부드러움과 끈질김으로 간청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말씀과 그것의 실천이 중요한 이유는 거짓 화해를 경계하고 진실한 화해를 이뤄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화해는 거짓과 불의를 덮어두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화해이기에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냄으로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리하여 교회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와 죄를 쉽게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의 나

라를 온 세상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 오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렘 4:1~2)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고, 또 전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강력한 불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처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세계 지배의 야심을 품고 팽창하는 무자비한 탐욕과 폭력의 제국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희망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하여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들로 도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와 군사력에서 강력한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과 사람들을 엄격한 규정과 법을 가지고 통제하고 때로는 차별하며 억압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억압을 받은 민족들은 앙심을 품고 테러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테러는 전쟁을 낳고, 전쟁은 새로운 테러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지금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탐욕과 폭력의 제국과 그것의 불법에 맞서서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꿈꾸는 것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생명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외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지극한 성실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고후 5:21) 하나님을 또 다시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해하게 하신 목적이며,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는 말씀과 직책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십시오! 또 언제 어디서나 화해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7



신문구 목사

일신교회 담임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평신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나의 좋은 점을 보십니다.

다윗은 형들에게서 바보 취급을 받던 못난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빛이 밝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식구들에게 못난이 취급을 받았지만 주님은 다윗의 다른 좋은 면을 보셨습니다.

필자에게는 7살 된 손녀와 2살 된 손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손녀가 무척 예쁩니다. 예쁘지 않은 곳은 안 보이고 예쁜 볼, 입술, 눈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밋다는 코도 예쁘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변을 봤는데 굵은 가래떡 같았어요. 애들은 코를

움켜쥐고 냄새가 난다고 야단법석인데 저는 그 냄새가 구수하더라고요. 손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즈음 뒤통거리며 걷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나 실수하는 것들은 눈감아 주십니다. 우리의 예쁜 면을 보시고 우리가 잘한 일만을 보십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며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감 있게 고개를 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성공했는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을 평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2.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사랑합시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못났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한심해, 나는 매력이 없어!” 이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물론 누구에게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쳐야 할 나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나쁜 점은 최선을 다하여 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점은 살리고 좋아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내 모습이 되살아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3.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미래가 점점 밝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삼상 16:12b)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움”을 보고, 또 기름부음을 받고 그의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악사가 되었고, 골리앗을 이기는 장군이 되었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좋은 점을 보시고 내게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부음-성령을 받은 우리의 미래는 점점 밝아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새 지폐 1만 원짜리를 준다면 누구나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 돈을 구겨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지폐를 땅바닥에 던지고 짓밟았어도, 아무리 지저분해도 여전히 1만원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여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험 돈도,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이 구겨지거나 더러워도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각자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난관에 부딪히고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지폐 같은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1만 원짜리 지폐가 여전히 가치가 있듯이, 우리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가치를 주셨으니 그 누구도 내게서 그 가치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지 맙시다. 누군가에게 학대당하고 이용당해서 아픔이 있다 해도, 좋은 친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해도, 어렸을 적에 상처받은 일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 속에 살아 왔던 일, 과거에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 같아 보여도, 스스로 상심과 고통, 죄책감, 자기 비하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모두 마귀가 주는 헛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내일을 향하여 가슴을 펴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고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달관했

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던 아들람 굴까지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가 귀한 것처럼 원수 사울도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해치지 않았습니다(삼상 24:1~7).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은 마음이 활짝 열리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수도 귀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활짝 열면 밝은 미래가 보이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항상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삼상 16:13b).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은 후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고 감동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입만 열면 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 감격, 새로운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시 40:3)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가,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알까요? 안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들을 아이들의 생각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꿈을 아름다운 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항상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승리요 축복이 예비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개를 높이 드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통하여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복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좋은 점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삼상 16:13)

다윗은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살았는지 시가 줄줄 쏟아져 거룩한 시인이 되었

습니다. 다윗은 유별나게 시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는 모두 인생의 희망을 노래한 것들입니다. 마침내는 왕이 되어서 모범적인 신앙의 영웅으로 만세에 본을 보였습니다. 나의 좋은 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좋은 점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비밀을 말은 자”

고린도전서 4:1~2



이 상 운 목사

서원교회 담임

오늘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상(像)을 이루어 냄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복음의 능력이 더욱 널리 나타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이바지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무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한 두 개쯤의 비밀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비밀들은 알려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비밀이든지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밀이든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국가 간에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은 농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결정을 이미 해놓고서도 비밀처럼 함구했던 일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때 현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 해도 세상에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밀은 없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의 가벼운 입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 남침을 목적으로 깊이 땅굴을 팠던 것도, 그 속에 숨어서 몰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감시위성이 장착된 카메라에 찍혀서 생생하게 공개되는 것을 보면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한 가지 좋은 사례가 됩니다.

주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 10:26)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 더욱 밝히고 드러내어 공개해야 할 비밀이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천하에 공개해야 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전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감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속히 뉘우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였고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며 시기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5:8)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서는 베드로를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치부가 보이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이거나 보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며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파는 물건이 사실은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불려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3~20)고 담대히 말하니 관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보내신 사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장차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고 더욱 담대히 열심을 다하여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맡은 일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어로 ‘성실한’이라는 말은 “Sincere”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밀초로 때우지 않은’(without wax)이라고 합니다. 흔히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대리석 조각품을 우송해 보낼 때 조각품의 모서리가 파손되거나 석상의 미세한 부분이 떨어질 경우 그 파손된 부분을 밀초로 붙여 위장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으나 비바람이나 열기(熱氣)에 노출되면 그 흉터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 염려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눈속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자들이 주인이 지켜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없을 때에는 적당히 하려는 태도는 성실함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실하며 누구에게든지 성실해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성실치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성실하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 23:19)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고 하였습니다. 성실성이 결여된 사람과는 어느 누구도 중요한 일을 함께 하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한 학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우 중요한 사람”(VIP-Very Important Person), 둘째는 “잘 가르치는 사람”(VTP-Very Teaching Person), 셋째는 “매우 시끄러운 사람”(VNP-Very Noise Person), 넷째는 “매우 곤란한 사람”(VDP-Very Difficult Person)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끄럽게 문제만 일으켜서 교회와 다른 이들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맡은 일에 성실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는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맡은 후에는 감시나 감독을 할 필요가 없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속이기에 능하고 떼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다섯 달란트를 받아 다섯 달란트의 이득을 남겨서 주인의 칭찬과 더불어 상급을 받았던 종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고 하였습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맡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충성하지도 않을 사람에게 값지고 중요한 것을 맡길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맡긴다면 손해만 안길뿐 이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시 101:6)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불러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여 쓰신 것도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민 12:7).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

라고 하였습니다(딤후 1:12). 충성하려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는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충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충성한 신 주님은 천하보다 더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충신들은 제 명(命)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치나 봐 가면서 손해 안 볼만큼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날마다 다짐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영광스런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자료 모음(예화)

유 영 설 목사

문래동교회 담임

● ● 예화 ① : 미국 감리교 한국선교 개시

1882년 5월 22일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된 후 그 비준의 답례사절로 민영익을 수반으로 한 사절단이 1883년 6월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미국 군함을 사용하여 여행했으며 아더(Arther)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 국민들은 정중한 태도로 한국사절단을 환영하였다. 이들은 미국 서부에 상륙하여 기차 편으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영익은 도중에 차내에서 볼티모어(Baltimore)에 있는 가우처 대학교의 총장인 가우처(John F. Gaucher) 목사를 우연히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접촉이 한국선교 개시의 기원이 될 줄이야 그때에는 아무도 몰랐다. 가우처 목사는 사절단원들과 대륙을 횡단하면서 한국인의 씩씩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특히 전권대사 민영익과 담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다. 가우처 목사는 한국이야말로 새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는 곧 감리교 선교본부에 한국선교의 개시를 권유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선교를 시작하기 위하여 2천 달러의 현금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감리교 선교본부에서는 한국 선교의 시기상조론이 있어 그는 좋은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가우처 목사는 자신의 권유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게 되자 일본에 선교사로 가있는 맥클레이(Robert S. Maclay) 목사에게 한국선교에 관하여 서신을 보내면

서 한국에 건너가 답사한 후에 선교지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맥클레이 목사는 한국선교를 열렬히 희망하고 있었기에 가우처 목사의 요청을 받아 1884년 6월 24일 신속히 한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몇 해 전에 동경에서 친교를 맺은 한국정부의 고관 김옥균을 통하여 고종 황제를 만날 수 있었다. 이때 맥클레이 목사는 일본어로 된 서한을 국왕에게 바쳤다(R.S Maclay, Korea's Permit to christianity,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9, 1895. p289).

그리하여 그해 7월 3일 고종은 맥클레이 목사에게 한국 국내에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하는 윤허를 내렸다. 맥클레이 목사는 미국 공사 후트(Lucius H. Foote)에게 서울에 선교사 주택과 병원, 학교 등의 시설을 위한 부지 구입을 위탁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맥클레이 목사는 가우처 목사에게 기쁨이 넘친 회신을 보냈다.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도 빠른 시일 내에 교육과 의료사업에 종사할 선교사를 선임하여 파송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그의 편지는 ‘교육사업과 의료사업부터 시작하지만 선교를 위한다는 사실을 감추지 아니하여도 무관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사업이나 병원 개설이 모두 성과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첨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 정부의 반대가 없을 것이다’라고 선교본부를 향해 단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곧 미국 북 감리교의 유력한 기관지 “그리스도인 회보”(The Christian Advocate)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복음세계”(The Gospel in All Lands)라고 하는 선교회보에도 일본 주재 선교사들의 열렬한 호소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게재되었다. 호소문의 발표에 따라 드디어 미국교회의 한국선교에 관한 관심은 급격히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도처에서 한국선교를 위한 헌금이 선교부에 답지했고 1883년에는 5천 달러의 금액이 한국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선교부 예산에 편입되었다. 1884년 말 아펜젤러(Rev. H. G. Appenzeller) 목사 부부를 비롯하여 스크랜튼(Rev. W. B. Scranton M. D) 의사 부부와 그의 모친인 메리 스크랜튼(Mrs. M. F. Scranton) 여사 등 5명이 한국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선택되었다. 이들 일행은 1885년 2월 3일, 아라빅(S. S. Arabic) 호를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항을 떠나 한국을 향하여 태평양 횡단 항로에 오르게 되었다.

●● 예화 ② : 50년 동안 모은 사람

지난 2000년 제2차 이산가족 상봉시 북한의 김응용 님은 남쪽의 동생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다. 그것은 지난 50년 동안 모아 온 밤 오십 톨이었다. “내가 밤을 따 왔다. 자, 받아라!”

형은 눈물로 범벅이 된 동생을 다시 한 번 껴안으며 50년 전 전쟁 통에 어린 두 동생을 근처 외갓집에 맡기고 피난 가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유난히 울며불며 떨어지지 않던 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밤을 따러 간다고 말했던 것이다. 잠시 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평생에 한이 될 거짓말인 줄 몰랐다. 그래서 그에게는 ‘뒷산에 밤 따러 가는 거야’라고 둘러댔던 말이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황해남도 벽성군에 자리 잡고 살면서부터 일 년에 한 톨씩 모은 것이 어느덧 오십 톨이 된 것이다.

“어렸을 때는 형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형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고마워..., 고마워..., 형!”

다음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형을 배웅하는 동생은 밤 몇 톨을 손에 꼭 쥐고 형에게 말했다.

“집 마당에 이 밤을 심고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형이 생각날 때마다 바라볼게!”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키운 밤나무에서 밤을 따다 줄게.”

형은 눈물이 그렇그렇 맺힌 동생의 어깨를 조용히 안아 주고 버스에 올랐다.

평생 마음에 걸렸던 약속을 지킨 형은 다시 동생을 남겨 두고 떠나야 하지만 그 밤톨이 싹을 틔워 큰 나무가 될 무렵엔 두 형제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빌었다.

●● 예화 ③ : 주님을 위해 환난 받은 선교사들

지금 미국의 뉴욕 주가 아직 황야로 있을 때이다. 그 지역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유럽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매우 괴롭게 만들었다.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 브레베, 달르망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증인이었다. 그 인디언들은 선교사들에게 소름끼치는 고문을 가한 다음에 심장을 도려내어 씹어 먹고 피는 그대로 마셨다. 그들은 왜 이토록 잔인한 행동을 하였을까? 인디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

람의 피를 마심으로써 용감한 정신을 자기들 안에 스며들게 하려 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이 당한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거친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맞고 머리카락, 턱수염, 손톱은 생채로 뽑히고, 손가락은 그들의 입에 넣고 깨물었다. 그들은 이 모든 고통들을 주님과 인디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어 냈던 것이다. 인디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그 선교사들은 죽음을 통하여 승리자가 된 것이다.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24:9)

● ● 예화 ④ : 피를 흘린 선교사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땀을 흘리며 낮선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흑인 청년 한 명이 나무 밑에 서 있고 추장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선교사가 옆에 있던 한 부인에게 물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추장이 총살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선교사는 뛰어가서 죄수 옆에 서서 소리쳤다.

“추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추장은 노한 소리로 외쳤다.

“소용없는 일이오!”, “비키시오!”, “그는 죽어야 하오!”

“안됩니다!”

“그럼 당신이 총에 맞게 되오!”

선교사는 비켜서지 않았다. 추장이 총을 쏘았을 때 선교사는 오른쪽 다리를 높이 들었다. 선교사가 다리에 총을 맞아 피가 철철 쏟아지는 것을 본 추장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선교사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흑인은 선교사에게 감사하면서 선교사를 위해 살겠다고 따라가게 되었다.

채수덕, 『짧은 글 긴 생각』

설교자료 모음(예화)

정진권 목사

염창교회 담임

●● 예화 ① : 두 감독의 순교 이야기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항상 순교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순교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고 믿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항상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고, 소원대로 로마로 끌려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 굶주렸다가 풀어놓은 사자들이 삼시간에 그의 살과 뼈를 뜯어 몇 개의 뼈 밖에 남지 않은 참담한 순교의 현장이었다. 그의 순교를 지켜 본 믿음의 동지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친구들은 이그나티우스가 마치 열심히 노동하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땀을 흘리면서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다.

폴리갑(Polycarp, 주후 약69~155년 경)은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속사도시대의 대표적인 교부이다. 그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였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진 폴리갑은 황제를 주(主)로 고백하지 않은 죄로 화형을 당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Qurious)라고 불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큐리오스(主)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主)라고 고백함으로 생명을 포기해야 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또 하나의 황제를 인정하는 반란죄에 해당하는 국사범이기 때문이었다.

폴리갑을 처형하기 전에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집정관이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폴리갑은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라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화형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과 다정하게 담소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였다. 그는 선 채로 하나님께 한 시간 내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다. 기도를 마치자 나귀에 태워서 성내로 끌고 갔다. 폴리갑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 설 때에 하늘로부터 “폴리갑이여, 강하고 남자답게 담대하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형을 집행하는 군병이 장작더미에 불을 지폈다.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되고, 그의 몸은 마치 용광로 속의 금이나 은처럼 빛이 나면서 타는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형장에 가득했다고 한다.

● ● **예화 ② : 기도의 사람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고두고 감사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기도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한국전쟁을 휴전으로 이끈 명장이고, 전쟁 후에도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무상원조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의 재건의 토대를 세워준 사람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가장 절친한 친구인 이 사람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이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이었다. 아이젠하워는 순전한 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다. 청년 시절에 다리의 질병이 심각하여 의사는 수술을 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가족들과 의사가 합의하여 강제로 마취를 시키지 않을까 염려하여 형에게 병상을 지켜 줄 것을 부탁했다. 하나님은 아이젠하워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 아이젠하워의 다리를 완전히 고쳐 주셨다. 만일 의사의 진단대로 다리를 절단하였더라면 훗날 세계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공헌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던 아이젠하워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였고 졸업후 보병소위로 임관했다. 맥아더 장군과 달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못했던 그는 47살이 되도록 만년 소령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무능한 장교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성 장군으로 승진하여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바로 전 날 저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친 후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연설했다고 한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 장군의 노르망디 상륙 연설문)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날 밤인 1944년 6월 6일은 폭우와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었다. 악천후를 고민하던 연합군 지도자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17시간이나 기도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사상 최대의 작전’ 이었고, 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아이젠하워로 인하여 나치 독일에 결

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히틀러가 1945년 4월 29일 총통관저에서 자살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도 손을 들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 **예화 ③ : 크리스티안 10세와 예레미야** —

지난 2005년 9월, 서울남연회 감리사협의회가 있어 코펜하겐에 갔었다. 코펜하겐은 나의 신학여정에서 첫 번째로 만난 스승,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의 고향이라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코펜하겐에는 중세기의 우람하고 고색 찬란한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왕의 동상 하나가 서 있었다. 크리스티안 10세(Christian X)의 동상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점령에 맞서 국민적 저항을 이끌었던 상징적인 왕이다. 크리스티안 10세는 부왕 프레데리크(Frederik) 8세가 덴마크령 서인도제도를 미국에 팔아넘기려고 하자(1911년),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항명운동에 앞장섰던 왕세자였다. 이런 용감한 왕이 1940년 독일군이 덴마크를 침략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 한번 해보지 않은 채 항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왕은 아침마다 말을 타고 코펜하겐 거리를 다니며 독일군에 대하여 무언의 항의를 하였다. 사람들은 크리스티안을 비겁한 왕이라고 욕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크리스티안 10세는 마지막까지 독일 점령군에게 항거하고 반유대인 입법에 서명하라는 나치즘(Nazism)에 반대하여 연금 상태에서 옥사하였다.

그 후 독일이 연합군에게 망하고, 나라가 회복된 후에 덴마크 사람들은 크리스티안 10세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왕의 동상을 세워 그를 추모하게 되었다. 크리스티안 10세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독일군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덴마크의 백성과 아름다운 코펜하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복한 것이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만 위대한 왕이 아니라 비록 왕조는 잠시 망할지라도 백성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살신성인한 크리스티안 10세의 선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지도자 상이 아닌가! 크리스티안의 애국은 코펜하겐을 피바다로 만들면서까지 왕조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코펜하겐

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 나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어깨에 통나무를 메고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속수무책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바벨론에서 70년을 복역한 후에 포로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에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라는 망하더라도 백성은 살리려는 애국심이었다.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결박하여 항복한 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고 갔다. 예레미야에게는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선대하리라”고 호의를 베풀며 바벨론으로 가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선지자는 바벨론의 모든 호의를 마다하고 유다에 남아 나라가 망하여 갈 곳이 없는 남은 자들과 함께 살았다. 선지자의 마지막은 비참했다. 예레미야는 친(親)바벨론자라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주권을 빼앗긴 땅에서 초차 살지 못한 채 애굽으로 갔다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시드기야 왕이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10세처럼 백성의 생명을 자기의 명예보다 더 사랑하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자기의 왕관보다 더 소중히 여겨 바벨론 왕에게 일찍 항복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찬란히 빛났을 것이다.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그대로 보전되고, 하나님의 법궤도 분실되지 아니하고,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1) 평신도주간과 평신도주일 성수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평신도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계기로 평신도의 선교역량을 극대화시켜야 웨슬리의 신앙 유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평신도 단체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우리 감리교회의 특별한 신앙실천운동입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통하여 평신도들이 교회 행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나누고 섬기는 신앙 실천으로 평신도로서의 위상을 높여 갈 수가 있습니다.

2) 금년 평신도주일은 “웨슬리의 신앙유산을 이어가는 평신도”라는 총 주제 아래 2006년도 “세계 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라는 주제로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7월에 세계감리교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감리교회가 세계감리교회들 속에 우뚝 서고, 우리 평신도들도 웨슬리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갖고 선교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어 감리회의 부흥 발전과 평신도의 위상을 높이는 생활 실천자가 되고자 합니다.

3) 개체 교회는 신앙의 실천이 강조되는 평신도주일 성수의 의미를 2~3주 전부터 주보에 홍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전에 사회봉사부가 주관이 되어 각 기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개체 교회에 합당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실천항목 선정

및 기관별 담당을 정하여 격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평신도주일을 지킵시다.

4) 평신도주일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 ① 50%는 본부의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재해재난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 ② 50%는 지방 평신도 사업, 지방 협력 사업, 사회봉사 사업의 재원 등으로 사용합니다.

● 평신도주일헌금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우 체 국 010041-01-0391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5) 평신도주일 · 주간 행사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봉사 사업이나 평신도 중점 사업과 자료에 예시된 사업을 참고하셔서 즐거운 축제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6)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개체 교회 평신도주일성수 결과보고서 ①을 취합하여 평신도주일성수 결과보고서 ②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팩스(02-399-4350)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사일지는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향후 본부 사회평신도국은 평신도들이 항상 교회와 사회가 요구하는 곳에 능력 있는 평신도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평신도 지도력을 높일 것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사회 속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자원봉사자 육성 사업,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홈페이지나 각종 자료들을 통하여 각 지방들과 개체 교회들이 사회평신도국의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일들이 헛되지 않고 보다 큰 틀의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관	프로그램	방 법
지방연합	평신도주일 연합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별이나, 지방을 연합하여 지구별로 한다. • 반드시 감리사와 교역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어야 한다. • 연합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찾고, 미리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평신도주일 교환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단교류, 외부강사 초빙, 열린 예배(연극, 워십 댄스 등) • 목적(특별) 헌금을 드린다. • 예배 순서에 참여한다.
	평신도상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상, 효자효부상 등. • 연합예배시 시상하는 것이 좋고, 선정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 개체 교회에 의뢰하여 신청을 받고, 상패와 부상을 준비한다.
교회 (남,여,청장년 연합)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위로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 내에 경노의식을 고취한다. •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반드시 용돈을 준비하여 드린다. • 흥겨운 놀이로 함께 참여 한다.
	성경암송, 찬송가 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회별, 가정별, 선교회별로 한다. • 경연대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문화행사를 겸하면 좋다.
	미자립 교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헌금이나 기금으로 한다(목적사업). • 전도, 지역봉사, 경로잔치 및 문화행사와 함께 겸하면 더욱 좋다. • 방문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먼저 알아본다.
	생명밥상 빈그릇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의 신앙 실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남선교회	신앙 및 교양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생활 성공 사례 발표회 및 전도 간증을 한다. •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하기보다 교회 내에서 찾는다. •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작은 책자나 교회회보에 실린다.
	감리교 유적지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교 유적지: 제암리교회, 선교사 묘지, 남궁역 장로 기념관·무궁화동산(한서교회), 체천 탁사정(최병헌 목사), 아펜젤러 유적지, 유관순 생가 등. • 경로잔치를 겸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 현지에서 간단한 설명회나 좌담회를 갖도록 한다.

행사주관	프로그램	방 법
여선교회	바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이 무엇인지 인식시킨다(경로잔치, 효도관광,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 교인들의 가정에서 물품을 기부 받는다(시장에서 사다 팔면 장사가 되기 쉽다). •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랑의 편지 보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낙심자, 장기결석자, 군에 간 청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 전도할 사람 등. • 편지를 보낼 때 정성을 다한다(글씨, 편지지, 봉투, 다정한 언어). • E-mail 이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라.
청장년 선교회	교회 환경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이 솔선수범하고 청년회, 학생회와 연합하여 실시한다. • 화장실이나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 청소 및 봉사까지 하여 교회 이미지를 갱신한다.
	체육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회가 주관하여 교회체육대회를 하거나, 지방 청장년선교회가 주관하여 지방체육대회를 한다. • 매년 하는 것 보다 격년으로 하여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매년 하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 경쟁을 지양하고, 화합과 일치를 지향한다.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의 역할

- ❖ 지방 감리사의 협력을 받아 지방 내 전 교회가 평신도주일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한다.
- ❖ 각 교회의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추진한다.
- ❖ 개체 교회의 평신도주일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 ❖ 지방 내 평신도 단체의 화합 및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 ❖ 청장년선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방은 평신도 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꼭 조직하도록 권장하고 조직된 지방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사회봉사 사업 예시

가. 재해기금 사업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옴으로 한순간에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연재해의 피해상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재난재해지역과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금을 모금하고 재해를 입은 교회 및 가정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각 교회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의 사회참여, 그리고 효율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감리교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업의 기본 이념

본 사업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실현을 위해 나눔과 섬김의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해기금 사업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이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와 희망을 갖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구촌의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참여방식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국내외 감리교회, 기관, 평신도단체의 특별 현금과 개인의 후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항상 재해가 발생할 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각종 재난과 재해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재해지역을 지원할 때 창구는 본부 사회평신도국으로 일원화하여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기금을 후원하신 교회나 개인의 명단은 기독교타임즈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재해기금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00447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우 체 국 010041-01-027457

우리은행 142-242485-13-078

3) 기금의 용도 및 사용처

교회와 단체 및 기타 개인들의 참여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갑작스런 천재지변, 인재사고, 전쟁 등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과 난민 등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지원 및 긴급복구를 지원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는 산불로 피해를 당한 양양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양양군청을 통해 지원하고 피해 감리교인 21가정을 지원하였으며, 12월에 삼남연회 소속의 폭설피해를 당한 7교회와 10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돕기, 미국 뉴올리언즈시 허리케인 카트리나피해 돕기, 파키스탄 지진피해 돕기 등 국제적 재해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처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재난복구 지원은 복구계획서를 받아 점검하며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시간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2005년 한 해에도 연이어 발생한 재난재해에 피해를 당한 교회와 재해민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의 결과였습니다.

나. 사회봉사 사업

우리 감리교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존 웨슬리의 섬김은 감리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웃이 어려울 때 찾아가는 따뜻한 사랑으로 150만 감리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1) 시행방법

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눔과 섬김의 신앙생활을 실천하도록 성도들을 훈련

시켜 교회생활의 보람을 갖게 합니다.

나) 이웃돕기 모금은 산타클로스 저금통운동, 특별헌금, 일반 후원금 등으로 합니다.

다) 이웃돕기의 대상을 교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2) 사업내용

이웃돕기는 모금보다도 효율적으로 분배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 평신도국을 중심으로 한 이웃돕기는 감리회의 정체성과 봉사하는 감리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 사회적 신뢰 확보와 전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자원봉사 활동 및 결연사업(지자체 사회복지과)

-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반찬 나누기, 청소, 도배 등)
-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후원
(등록금, 용돈, 교재비, 교복 등)
- 결식아동 지원(도시락)
-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결연(후원) 및 자원봉사
- 기타 지역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나) 교회 시설 이용 및 개방(열린 교회)

-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공부방) 및 도서관
- 청소년 쉼터 및 실직 노숙자 쉼터
- 저소득 가정 유아 탁아소, 탁노소
- 교육관이나 기타 유휴시설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개방
- 지역 어르신 섬김 행사(무료급식, 경로잔치, 이·미용)

다)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 참여

-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 어려운 이웃과 물질을 나누고 건강한 육체로 봉사하며 이웃을 섬깁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사회평신도국의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하는 교회는 사회평신도국으로부터 저금통을 받아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불우이웃돕기 지원현황
한 해 동안 불우한 환경에 있는 환우 5명,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1명,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시설 21개소를 지원하였고, 특별히 북한의 온정리 주민을 돕기 위해 연탄을 지원하였으며, 제주선교대회시 제주도 불우학생 장학금을 제주도청에 전달하는 한편 KBS 방송의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위한 홍보차량 ‘희망버스’ 개조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선교회의 기술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여 미자립교회 1채와 저소득 장애·독거노인의 주택 4채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 불우이웃돕기도 특정 기관 및 대상에게 지정기탁이 가능합니다.

● 불우이웃돕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42-242485-13-121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라) 헌혈운동

- 교회 절기 및 창립주일 등의 특별주일 행사와 병행하여 전개합니다.
 - 대한적십자사 대표안내 ☎ 02-3705-3705
 - 혈액사업본부 전국 혈액원 안내 ☎ 02-3705-3761
- 헌혈증서를 교회 내·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에 전합니다.

마) 사랑의 집짓기 운동 봉사

-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감리교회 이름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 02-2267-3702
 - 사랑의 집짓기 천안·아산지회 ☎ 041-541-1057

바) 기술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사회평신도국이 매년 청장년선교회와 협력해 펼치는 가전 및 집수리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합니다. 2005년 7월에 미자립교회 1채와 9월에 2박3일간 강화도 교동면에서 저소득 장애·독거노인 4가구의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었습니다.

4. 세계감리교대회(World Methodist Conference) 소개

가. 세계감리교협의회(World Methodist Council) 란?

세계 감리교 협의회는 세계 최초로 구성된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체의 하나로, 그 기원은 188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 감리교 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전 세계 132개국에 흩어져 있는 감리교회들과 관련된 연합교회들을 연결하고 있는 협의체이다. 현재 78개 교단이 가입해 있으며, 교인 수는 7,000만 명, 세례교인 수만 3,5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 감리교 협의회 본부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레이크 주날루스카에 있으며, 존 웨슬리의 유품과 세계 감리교 역사를 보관하는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나. 세계감리교협의회(World Methodist Council) 4대 주요사업

- 1) 감리교회 상호협력: 감리교회와 관련된 모든 단체와 개인을 연결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교류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2) 복음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것을 목표로 교회 내 상호 교류, 전도 훈련 프로그램, 복음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 모색 등을 연구한다.
- 3) 평화와 정의 구현: 인권과 세계 평화, 사회복리 증진,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하며 특별히 세계평화를 위해 이바지한 인물을 선정하여 매년마다 세계 감리교 평화의 상(World Methodist Peace Award)을 시상한다.
- 4) 에큐메니칼 운동: 협의회는 다른 교단, 교파와의 일치운동을 통해 성서에 기초하여 초교파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과 사역을 위해 협의한다.

다. 세계감리교대회(World Methodist Conference) 모임 연도와 장소

1881년 처음 세계대회를 열고나서부터 매 10년마다 세계대회를 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1951년 영국 옥스퍼드 대회 이후부터는 5년마다 대회를 열기로 하여 지금까지 5년 임기로 총회와 대회를 동시에 열고 있다.

1881년 제 1회 영국 런던

1891년 제 2회 미국 워싱턴 D.C.

1901년 제 3회 영국 런던

1911년 제 4회 캐나다 토론토

1921년 제 5회 영국 런던

1931년 제 6회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1947년 제 7회 미국 메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

1951년 제 8회 영국 옥스퍼드(세계감리교협의회로 개칭)

1956년 제 9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레이크 주날루스카

1961년 제10회 노르웨이 오슬로

1966년 제11회 영국 런던

1971년 제12회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1976년 제13회 아일랜드 더블린

1981년 제14회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

1986년 제15회 케냐 나이로비

1991년 제16회 싱가포르

1996년 제17회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

2001년 제18회 영국 브라이튼

2006년 제19회 대한민국 서울

라.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World Methodist Conference)

1) 일시: 2006년 7월 20일(목)~24일(월)

2) 장소: 금란교회

- 3)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God in Christ reconciling)
 4) 참석예상인원 : 10,000여 명 (외국대표자 5,000여 명+내국인 5,000여 명)
 5) 대회일정

① 7월 20일(목)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

- 개회식과 성찬
- 환영사 : 선데이 음방 감독(WMC회장) - 나이지리아
신경하 감독회장
- 성경공부1 : 돌립 페르난도 목사 - 스리랑카
- 기조 연설 : 아부나 엘리야스 차코르 - 팔레스틴
박종천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② 7월 21일(금) “국가들 간의 화해”

- 예배와 성경공부2 : 트리버 허드슨 목사 - 남아프리카공화국
- 소주제 강연 : 로버트 솔로몬 감독 - 싱가포르
- 상임위원회 발표 I : 사회국제문제위원회, 교육위원회
- 세계 감리교 여선교회 연맹 발표
- 상임위원회 발표 II : 예배와예식위원회, 신학교육위원회
- 새로운 회원국가(교회)의 발표 : 호주 중국감리교회연맹, 방글라데시 감리교회, 콜롬비아 감리교회
- 세계 교회들의 보고
- 한국감리교회의 밤

③ 7월 22일(토) “사회 안에서의 화해”

- 예배와 성경공부3 : 헤더 모리스 목사 - 아일랜드
- 소주제 강연 : 단달라 감독(ANCC총무) - 남아프리카공화국
- 상임위원회 발표 III : 가정생활위원회, 청년위원회
- 세계 감리교 남선교회 연맹 발표
- 세미나와 워크숍

④ 7월 23일(일) “교회 안에서의 화해”

- 한국감리교회 주일예배 방문 / 통일예배(임진각)
- 상임위원회 발표 IV : 에큐메니칼 대화위원회

- 에큐메니칼 예배 이벤트
- 소주제 강연 : 샘 코비아 목사(WCC총무) - 케냐

⑤ 7월 24일(월) “개인을 위한 화해”

- 예배와 성경공부4 : 돌립 페르난도 목사 - 스리랑카
- 소주제 강연 : 애벌린 파커 박사 - 미국
- 상임위원회 발표 V : 세계복음전도위원회
- 여선교회 보고, 상임위원회 보고, 신 임원 소개 및 인사
- 폐회식

마. 세계감리교협의회 총회 및 기관별 대회

- 1) 세계감리교협의회 총회 : 2006. 7. 18(화) ~ 19(수), 정동제일교회
- 2) 세계감리교 남선교회 대회 : 2006. 7. 16(일) ~ 17(월), 정동제일교회
- 3) 세계감리교 여선교회 대회 : 2006. 7. 11(화) ~ 17(월), 제주 라마다플라자 호텔
- 4) 세계감리교 청년 대회 : 2006. 7. 12(수) ~ 19(수), 감리교신학대학교

바.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 로고



19th world Methodist Conference
July, 2006 - Seoul, Korea

대회 로고는 세계 모든 지역으로부터 오는 세계 감리교 공동체를 상징합니다(4개의 회과 색으로 표현).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화합과 일치 안에서 함께 하는 대회의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역동적이면서도 간결한 십자가 상징의 연출로 묘사되었습니다.

사.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해야할 일

1) 모든 감리교인이 할 일

① 기도로 참여합니다.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 화해의 실현을 위해
- 한국감리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을 위해

② 세계감리교대회를 널리 홍보하고 자랑합니다.

③ 전야제(7월 14일, 금란교회)에 참여합니다.

④ 자원봉사자(음악, 민박가정, 안내, 통역, 차량, 사무, 행사지원 등)에 등록하여 봉사합니다.

2) 교회가 할 일

① 365기도운동에 참여하며, 집회 때마다 기도합니다.

② WMC대회를 위한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③ 대회부담금을 정성껏 납부합니다.

④ 홍보영상물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주보에 WMC를 광고합니다.

⑤ 평신도 월례회 공과와 여름성경학교 교재로 WMC를 배웁시다.

⑥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⑦ 외국인 참가자를 주일예배(7월 23일)에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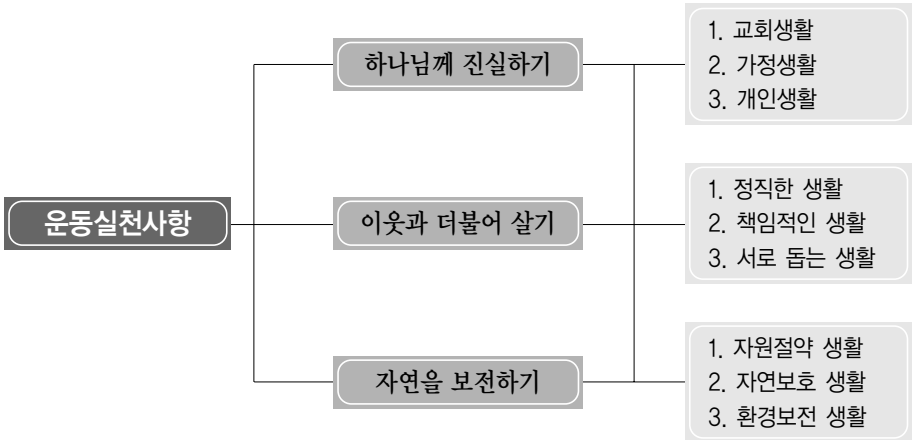
3) 지방이 할 일

① WMC대회를 주제로 성회를 엽시다.

② 교역자 회의 때마다 진행사항을 알리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③ 지방 평신도 단체들은 WMC대회를 위한 평신도기도회에 참여합니다.

5. 감리교 신앙 실천 운동



1. 하나님께 진실하기

가. 교회생활

1) 하나님과 의논하자(사 1:18).

우리는 매일 신앙과 생활의 문제에 부딪친다. 이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 담임목사나 믿음과 덕이 높은 평신도지도자를 찾아가 의논함으로써 잘 풀리게 된다.

2) 모든 예배에 참여하자.

교인은 마땅히 주일예배에 참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일오후/저녁예배, 수요일예배/찬양예배, 금요기도회(심야/철야), 속회(속별/연합)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

3) 헌신 봉사하자.

- (1)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거룩한 예배공동체를 이룩하자.
- (2)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자.
- (3)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정성껏 바치자.
- (4)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자.

감리교인의 교회생활 지침서

- ① 교회의 모든 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된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
- ②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한다.
- ③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 되도록 한다.
- ④ 교회에서 사적인 전화, 시외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도록 한다.
- ⑤ 교우관계에서 신세 지기보다 도와주고 금전거래는 하지 않도록 한다.
- ⑥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공동체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⑦ 말이나 일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한다.
- ⑧ 성도를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⑨ 교회의 공공시설물은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⑩ 성도들 간에 말과 호칭에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⑪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일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습관을 길러나간다.
- ⑫ 교회의 공지사항은 스스로 지켜서 전화로 재촉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⑬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 ⑭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말하고 이웃이나 식당 등 다른 장소에서 말하지 않도록 한다.
- ⑮ 교회의 어려운 일을 자녀들에게 말해서 부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정생활

1) 가정예배를 실천하자.

“하늘양식”을 가지고 가족이 서로 돌아가면서(윤번제) 예배를 인도하여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자.

2)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가족이 되자.

- (1)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가족이 되자.
- (2) 집안일을 서로 도와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하자.

3) 검소한 생활을 하자.

- (1) 옷차림과 가구는 실용적인 것으로 하고 외식을 삼가 하자.
- (2) 혼례절차와 경비를 줄여서 검소하게 하자.
- (3)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고 청빈한 생활을 실천하자.

감리교인의 가정생활 지침서

-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
- ② 청첩장은 가까운 가족과 친지에게만 보내어 집안의 행사가 되도록 한다.
- ③ 우리 가정만의 규범을 만들어 실천한다.
- ④ 올해의 가족상을 제정하여 연말에 시상하도록 한다.
- ⑤ 매주 한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한다.
- ⑥ 가족의 수입 내역을 공개하여 정직성을 나타내도록 한다.
- ⑦ 가족이 모두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한다.
- ⑧ 가족의 놀이문화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한다.
- ⑨ 식탁에서는 비판이나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한다.
- ⑩ 자녀들이 부모의 직장을 방문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도록 한다.
- ⑪ 가훈은 매년 가족들이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⑫ 어떤 일에도 지 감사의 인사를 하는 습관을 길러 가도록 한다.
- 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한다.
- ⑭ 삶에 대한 자신의 유언장을 써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항상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⑮ TV를 시청하지 않는 날을 정하여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한다. 귀가 시간은 밤 9시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 개인생활

1)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찬양하자.

- (1) 하루에 공동주제 5분 기도(교회, 이웃, 나라, 지구촌, 하나님 나라)
- (2) 하루에 성경 3장 이상(1년 통권), 하루에 찬송 1~2장(1년 통권)

2) 건전한 윤리생활을 실천하자.

술, 담배, 노름, 마약 같은 것을 멀리하게 하자.

3) 감사하며 기쁘게 살자.

- (1) 교회 안의 형제자매와 먼저 화목하고 기쁨으로 대하자.
- (2) 속상하게 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자.
- (3)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자

감리교인의 사회생활 지침서

- ① 반사회 등 지역사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②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④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길러 나간다.
- 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상하게 만든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항상 솔선수범 하는 직장인이 된다.
- ⑧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부하나 동료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 ⑨ 정직한 수고를 통하여 재산을 모으고 바르게 쓰도록 노력한다.
- ⑩ 직장생활에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한다.

- ⑪ 뇌물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말고 열심과 정직한 노력으로 인정받는다.
- ⑫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애향심을 기른다.
- ⑬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독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습관을 길러나간다.
- ⑭ 음식점의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말한다.
- ⑮ 공공장소에서는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⑯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코를 소리 내어 풀지 않도록 한다.
- ⑰ 공과금을 비롯해서 정해진 기한을 잘 지킴으로 연체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⑱ 문화공연 및 관람, 항공기와 대중교통 이용시 예약한 것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예약취소 전화를 한다.
- ⑲ 소방도로 구간에 주, 정차를 금지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도록 한다.

2.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가. 정직한 생활

1) 열심히 일하자.

- (1) 받는 것만큼 되돌려주며 작은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말자.
- (2) 땀 흘리는 수고와 심을 맛보며 살자.

2) 남을 속이지 말자.

- (1)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 (2) 오해가 생겼을 때는 내가 먼저 찾아가 풀자.
- (3) 거짓말과 변명은 하지 않는다.

3) 부동산 투기를 금하자

집은 한 채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지 말자.

나. 책임적인 생활

1) 약속을 지키자.

- (1) 이웃과의 약속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도록 하자.
- (2)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게 신용 있는 사람이 되자.

2) 맡은 일에 성실하자.

- (1)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자.
- (2) 맡겨진 일을 미루지 말자.

3) 이웃과 어른을 공경하자.

- (1) 교회가 사회의 덕목 교육장이 되게 하자.
- (2) 어른과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자.
- (3) 장애인들을 먼저 배려하고 도와주자.

다. 서로 돕는 생활

1) 서로 양보하자.

- (1) 어디서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습관을 생활화하자.
- (2) 전철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내린 다음에 승차하자.
- (3) 전철이나 버스의 장애인과 노약자 지정좌석은 항상 비워두자.

2) 옳은 일을 먼저 하자.

- (1) 현혈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자.
- (2) 예수의 지체인 우리가 나눔 운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자.

3) 어려운 이웃을 돕자.

- (1) 소년·소녀가장을 찾아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자.
- (2) 농촌과 도시교회 결연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갈 방법을 찾자.
- (3)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자.

3. 자연을 보호하기

가. 자원 절약생활

1) 소비절약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2) 폐품을 이용하자.

- (1) 일회용품을 덜 쓰도록 하자.
- (2) 중고품을 교환하자(교회나 공공시설을 이용).

3) 자원을 아껴 쓰자(하나 밖에 없는 지구).

- (1) 물, 기름, 전기를 아껴 쓰자(열관리 철저).
- (2) 과식을 금하자.

나. 자연 보존생활

1) 공해물질을 쓰지 말자.

- (1)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을 쓰지 말자.
- (2) 농약과 비닐을 적게 쓰자.

2) 동식물을 사랑하자.

- (1) 나무를 심고, 잔디를 밟지 말자.
- (2) 야생 동물을 보호하자.

3) 산과 강을 사랑하자.

- (1) 야외식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하자.
- (2) 쓰레기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가지고 돌아가자.

다. 환경 보전생활

1) 청소를 깨끗이 하자.

- (1) 껌이나 침을 함부로 뱉지 말자.
- (2) 오가는 길에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르자.

2)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

미화원의 노고를 기억하며 명절에 작은 선물로 위로하자.

3) 공공시설을 아끼자.

- (1) 공원이나 공공이용시설을 아끼자.
- (2) 대중시설 이용 후 뒷사람을 생각하자.
- (3)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후 반드시 손을 닦고 문손잡이를 잡자.



Ⅵ. 형부자료

1. 현수막 견본
2. 헌금봉투 견본
3. 포스터
4. 평신도주일 성수결과보고서 ①
5. 평신도주일 성수결과보고서 ②

1. 헌수막 견본

총주제 : “웨슬리의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평신도”
2006 년도 주제 : 세계 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

제 28 회

경 평 신 도 주 일 축

기간 : 2006. 5. 29 ~ 6. 4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_____ 연회 _____ 지방 _____ 교회

2. 헌금봉투 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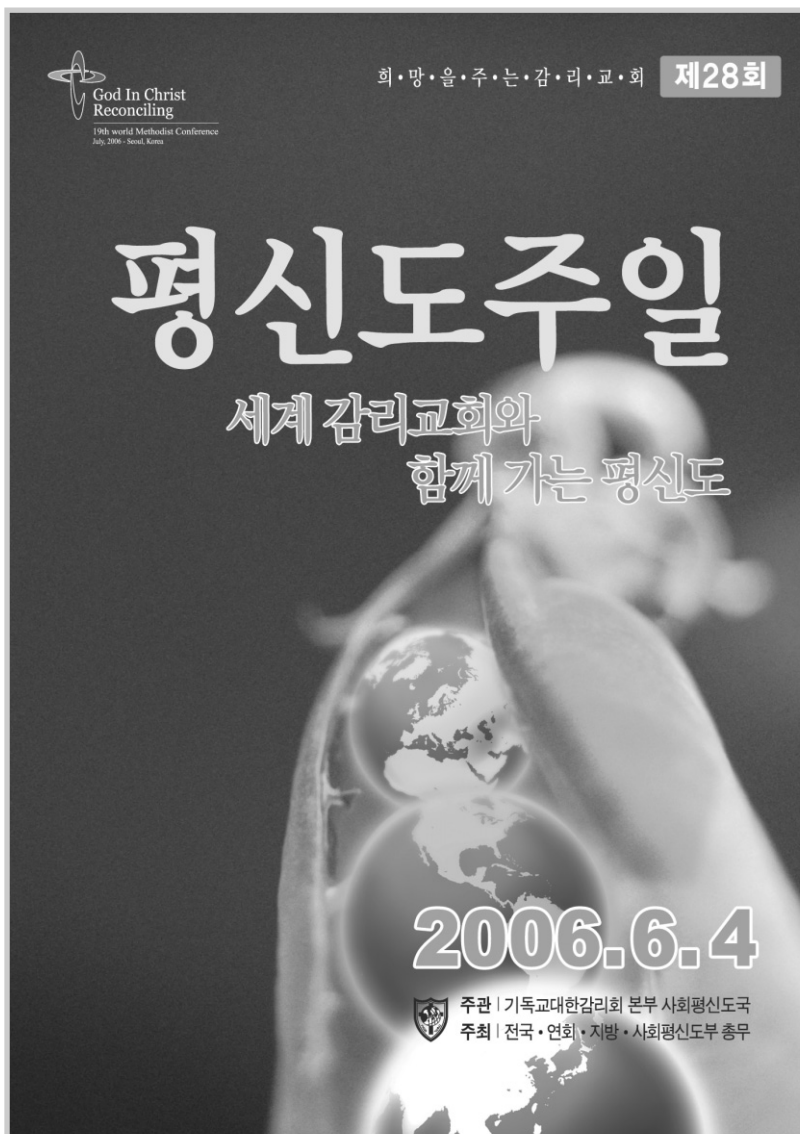
제28회
평신도주일 헌금

2006년 6월 4일

-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하여
- 지방 사회평신도사업을 위하여
- 재해기금사업 후원을 위하여

	지방	교회
봉헌액		
이름		

3. 포스터



5. 평신도주일 성수결과보고서 ②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 목 : 2006년 제28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평신도주일 성수교회 현황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 고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 고
			합계		

2. 지방 및 개체교회 평신도주일 주요 행사

♥ 평신도주일헌금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우 체 국 010041-01-0391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_____ 연회 _____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_____ (인)